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근대성의 매혹과 환멸

신정환(한국외대 강사)

| 글의 순서 | |
|-------|-------------------------|
| I. | 들어가는 말: 바로크와 근대성 |
| II. |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주관주의와 자기반영성 |
| III. | 위기의 사회: 주제절화, 과학, 혁명 |
| IV. | 근대성, 반근대성, 탈근대성 |
| V. | 맺는 말: 네오바로크와 근대성의 종말 |

I. 들어가는 말: 바로크와 근대성¹⁾

근대성이란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즉 중세 이후의 서유럽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말하기도 하고 계몽주의 이후 구체화된 철학적 사유를 뜻하기도 하며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화된 산업사회의 구조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이 이렇게 여러 시기에 걸쳐 새로운 양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1) 'Modernity'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현대인의 삶의 경험과 양식을 규정하는 용어로서 시대구분을 위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용어를 '근대성'으로 번역해야 할 지 혹은 '현대성'으로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말 이래 형성된 서구 사회의 존재 양태를 '근대성'으로, 이것의 극단화된 양태를 '초근대성'으로 또 이 초근대성에 대립해 19세기 말 이래 형성된 존재 양태를 '탈근대성'으로 보고 초근대성과 탈근대성이 얽혀 진행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현대성"이라고 정리하는 이정우의 견해대로 'modernity'는 "근대성"이라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한다(이정우, 1997: 7).

점은 그것을 시공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것의 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대성이나 중세성이라는 말과 달리 근대성이란 개념은 탈근대(脫近代)를 논의하는 오늘날 왜 그리 문제가 되는가?

근대성이란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전통과 단절된 상태에서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사고방식과 동질의 패러다임을 작동시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사상 고대와 중세라 분류할 수 있는 전통시대와 달리 근대인들은 20세기의 현대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탈근대라 일컬어지는 또 다른 거대한 시대의 문턱 -즉 단순한 시대(época)의 변환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시대(era)전환- 에서 근대성이란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가 아직 몸담고 있는 근대에 대한 이러한 첨예한 의식은, 초기의 근대인들이 중세인들과의 차이를 자의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개막시켰듯이(이정우(2), 1999: 1) 현재 또한 거대한 두 시대의 문턱에서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자체를 결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과거”로서 인식하는 현대성(근대성)의 패러다임의 역설적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임정택, 1997: 54).

근대성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 현대와 이질적이지 않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근대인데 그 시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대개 17세기라고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 역사학적 관점에서 근대를 중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근대는 비잔틴 제국의 멸망(1453), 혹은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1492)이 그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대란 앞서 보았듯이 사회 문화적 현상의 총체로서 제 분야에 걸쳐 사회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든스(Giddens)는 근대성이 17세기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점차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사회 생활이나 조직 양식을 일컫는다고 말하고 있다(A. Giddens, 1992: 1).

근대의 시작이라 간주되는 17세기에 스페인에서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문화적으로 도도한 변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후반까지 스페인은 엘 그레코(EI Greco), 벨라스케스(Velázquez), 무리요(Murillo), 등이 활약하는 회화에서 뿐만 아니라 시, 연극, 소설 등의 모든 장르에서 걸작들을 산출하며 문학의 융성기를 맞이하여 「황금세기」(Siglo de Oro)라 불리고 있다. 시에서는 공고라(Góngora)와 궤베도(Quevedo), 연극에서는 로페 데 베가(Lope de Vega), 칼데론 델 라 바르카(Calderón de la Barca), 띠르소 델 라 몰리나(Tirso de la Molina), 소설에서는 세르반테스(Cervantes)와 발따사르 그라시안(Baltasar Gracián)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여 서양문학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문학을 문예사조상으로는 보통 바로크(Barroco)로 분류하고 있다. 좁은 범위에서 17세기로 국한되지만 문예사조를 관통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고전주의와 함께 교차해서 나타나는 두 축이라고 간주되는 바로크문학은 특히 스페인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는 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헬무트 하츠펠트는 바로크가 스페인 정신의 산물이며, 다른 말로 하면, 스페인은 바로크의 모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elmut Hatzfeld, 1966: 432).

18세기이래 서구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의 위세에 눌려 무시와 경멸을 당하던 바로크 예술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한편으로는 뵘플린(Wolfflin)과 도르스(D'Ors) 등 일군의 비평가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의해 재평가되고 부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이 미학적으로 계승되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중남미 현대소설에서이다. 흔히 <붐소설>이라 불리는 1960년대의 중남미 현대소설은 공식적으로는, 까르뻬띠에르(Carpentier)가 주장하듯이, 중남미대륙의 내재적인 바로크적 성향과, 통시적으로는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는 스페인으로부터 계승한 역사적 바로크 미학을 결합하여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네오바로크'(Neobarroco)라고 불리어지기에 이르렀다.

흥미롭게도 바로크와 네오바로크는 서구에서 근대가 시작되는 17

세기와 근대성이 마지막 꽃을 피우고 종말이 논의되고 있는 20세기 후반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바로크의 역사적, 문학사적, 그리고 미학적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바로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만나고 있는 두 대륙의 미학이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와 함께 근대성과 바로크의 함수관계를 천착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정우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는 무한히 주름잡힌 계열들의 총체로서 이 논의의 계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역사 이해의 기본이 된다고 한다(이정우(2), 1999: 3). 이는 곧 논의의 “인식론적 층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는 근대성이 어떤 계열에서 가장 선명히 드러났으며 어떻게 파급되어 나가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정우(2), 1999: 3). 근대성과 관련시켜 볼 때 이정우는 이 계열을 정치, 경제, 철학, 자연과학, 그리고 문학과 예술 등 5개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정우(2), 1999: 3). 필자 역시 이를 전제로 하되 먼저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문학과 근대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머지 계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성과 관련된 17세기 스페인의 바로크, 중남미의 바로크, 그리고 20세기의 중남미 현대소설의 네오바로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각각 추출해 보려 한다.

II.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주관주의와 자기반영성

앞서 보았듯이 로마에서 시작되어 스페인에 도입된 바로크 문화는 천성적으로 복잡하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스페인 정신과 맞아떨어지면서 문학과 예술 방면에서 꽃을 피게 된다.²⁾ 그리고 이는 당시

2) 물론 스페인만이 바로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는 아니다. 선형적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이태리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나름대로 바로크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René Welleck, *Historia literaria. Problemas y conceptos*, Barcelona, Laia, 1983 참조.

식민지였던 중남미로 전파되어 또 하나의 바로크 문화를 탄생시킨다. 그런데 중남미의 바로크는 모국인 스페인의 그것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쿠바의 알레호 까르뻬띠에르와 레사마 리마(Lezama Lima)는 중남미가 원래부터 바로크적 천성을 타고났다고 말하며 바로크에 대한 중남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까르뻬띠에르에 의하면 중남미는 예술사적으로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바로크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으며 스페인이 정복한 후에는 고전적인 양식을 생략한 채 바로크양식의 예술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Joaquín Soler Serrano, 1986: 160). 이와 관련해 까르멘 부스띠요는 아메리카대륙의 전형적인 바로크적 성격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 첫째, 콜럼부스 도착 이전 원주민들의 건축과 조각 등 예술에서 나타나는 바로크성, 둘째, 유럽인이 처음 대하는 아메리카대륙의 경이롭고 무성한 자연과 이에 대한 명명(命名) 작업의 필요성, 셋째,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혼합문화, 마지막으로, 위의 혼합문화에서 비롯되는 부조화스러운 융합이 낳은 소외감정 등이다(Carmen Bustillo, 1988: 68). 중남미인들이 서구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외감은 17세기 유럽의 바로크 인간이 겪는 '중심의 부재'(centro vacío)와도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인들의 소외는 중심부의 유럽에 대한 소외라는 점에서 이중 소외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내재적인 바로크성이 네오바로크 현대소설을 낳는 공시적 배경이라면 문학사적으로 유입되는 스페인의 바로크미학은 그것의 통시적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바로크미학의 부활은 아방가르드 시운동이었던 <27세대, La generación de 27> 시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창조주의(creacionismo)와 초현실주의(surrealismo) 등 외국사조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시동인을 형성한 이들은 모국의 풍부한 바로크문학 전통을 발견하면서 더욱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1927년의 공고라 300주기 행사와 헤라르도 디에고(Gerardo Diego)에 의한 『공고라 시선집』 발간,

그리고 다마소 알론소(Dámaso Alonso)에 의한 공고라의 『고독(Soledades)』 재판집 등의 가시적 활동으로 드러나고 있다(신정환, 1998: 218).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 덕분에 그동안 ‘파식주의’(culteranismo), ‘기유주의’(奇喻主義, conceptismo), 그리고 ‘공고리즘’(gongorismo) 등으로 폄하되어 불리던 17세기 시인들이 ‘바로크’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어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면 20세기 초반의 바로크 복권은 이미 19세기말에 시작된 중남미 모데르니즘(modernismo) 시인들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었다(신정환, 1998: 219). 즉 루벤 다리오(Rubén Darío)를 비롯한 이 시인들은 공고라, 궤베도, 그라시안 등의 작품을 발굴해서 애독하고 있었던 것이다(Angel Rama, 1970: 11).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데르니즘 시인들 역시 17세기 스페인 시인들을 독자적으로 발견해 낸 공로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선배 시인들을 일깨워준 것은 바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이었다(신정환, 1998: 219). 특히 폴 베를렌느는 공고라의 시를 재발견한 최초의 인물로서 동료 시인들과 그 시에 대해 매혹되어 있다가 루벤 다리오가 파리에 여행을 왔을 때 그 사실을 일깨워 주며(Dámaso Alonso, 1982: 570). 루벤 다리오는 이를 다시 스페인에 있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전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징주의와 모데르니즘 시인들의 바로크에 대한 관심이 주로 경이로운 흥미의 차원이었다면 27세대 시인들은, 다마소 알론소가 말하듯이, 이를 실제 시 창작에 응용함으로써 300년의 간극을 잇는 미학적 계승자가 된다(신정환, 1998: 219).

위에서 본 바로크 미학의 복권과정은 중남미 현대소설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즉 중남미 현대소설이 이루어낸 언어혁명은 바로 모데르니즘과 27세대를 포함한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데르니즘은 현대소설이, 호르헤 라포르게도 지적하듯이, 스페인의 부패한 언어와는 다른 중남미 고유의 언어와 형식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Jorge Lafforgue, 1976: 19-20). 또한 유럽의 아방가르드 운동 역시 아메리카의 문학이

보편성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해 장 프랑코는 중남미 현대소설이 언어의 반역과 동시에 해방을 꾀한다고 하면서 이는 20년대의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한다(Jean Franco, 1975: 337).

이 과정에서 세사르 바예호(César Vallejo), 우이도브로(Huidobro), 보르헤스(Borges), 네루다(Neruda), 빠스(Paz) 등의 작가들은 유럽을 오가면서 구대륙의 사조들을 중남미에 도입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사조들 중에서도 초현실주의는 중남미 소설을 규정짓는 핵심적 개념인 ‘마환적 사실주의’(魔幻的 寫實主義, realismo mágico)³⁾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아우로라 오감뵈는 마환적 사실주의가 중남미 현실에 대입된 초현실주의에 다름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Aurora M. Ocampo, 1978: 403). 결론적으로 중남미 현대소설에 미친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현실개념의 확대, 둘째, (시적) 언어에 대한 관심, 셋째, 문학형식의 혁신과 실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합류하게 되는 17세기 스페인의 바로크와 20세기 중남미의 네오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주관주의의 도래, ②역사와 문학의 이종혼합(異種混合), ③언어의 자기반영성, ④수사법의 승리, ⑤문체적 복잡성, ⑥열린 소설, ⑦중심에 대한 향수.

이정우는 근대성의 문제를 천착하면서 앞서 말했던 ‘계열’의 문제 외에 ‘문턱’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문학사라는 계열을 보면 산문의 등장, 타자기 발명, 연재소설의 탄생 등과 같은 수많은 문턱들이 존재하는데 이 문턱들의 높이를 어떻게 가늠하는가가 문학사 서술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정우(2), 1997: 5). 그렇다면 바로크문학이라는 하위 계열 내에서 가장 큰 문턱은 무엇일까? 위에서 살펴본 여러 미학적 특징들, 다시 말해 새로이 등장한 언어적 계열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문턱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주관주

3) <마환적 사실주의>란 한국에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보통 번역되는 “realismo mágico”를 옮긴 말인데 현재 대만(臺灣)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마술적”이라는 말보다는 환상성(lo fantástico)의 측면이 가미된 “마환적”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고 원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의의 도래와 언어의 자기반영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요소들은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문학의 근대성을 담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 요소들은 나머지 5개의 요소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정우가 근대성의 계열로서 문학과 예술 외에 언급한 정치, 경제,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과도 그물망 같은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

Ⅲ. 위기의 사회: 주체철학, 과학, 혁명

17세기의 유럽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옛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갈등하는 단절의 세기였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 시기가 국가적 몰락이 절정에 달하는 때여서 호세 안토니오 마라발(José Antonio Maravall)은 바로크 시대가 오랜 기간 깊은 사회적 위기를 겪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스페인 바로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해 보기 위해 앞서 언급된 정치, 경제,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 4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근대성의 5계열은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 그런데 이정우는 17세기의 현대 과학의 탄생과 이와 더불어 진행된 '주체'철학, 그리고 이 철학에 의해 고무된 정치적 변혁과 혁명(프랑스 혁명을 의미)과 자본주의의 형성,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 속에 태동한 현대 문화를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정우(2), 1999: 4).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임정택이 「계몽의 현대성」에서 밝힌 바대로 17세기의 과학과 철학혁명에서 비롯하여 18세기의 계몽주의를 거쳐 등장한 18세기말의 독일 낭만주의, 19세기초의 청년 독일과 문학, 혹은 프랑스 상징주의 운동에서 근대 문학의 시작을 보는 것으로 귀결되어(임정택, 1997: 55-56) 결국 문학의 근대성의 연원에 대해 필자와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

자는 스페인과 중남미 역사를 중심으로 스페인 17세기와 중남미 20세기의 여러 계열을 살펴보면서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문학의 근대성과 역사적 근대성의 관계를 천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6-17세기의 과학혁명이 근대성의 명석을 깔아놓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오로 이어지는 천문학의 발견은 우주가 수학의 여러 법칙과 일치하여 운행한다는 사고를 확립시켰다. 이 자연과학적 성과를 가능케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진리와 이성 바탕을 둔 수학의 발전이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자연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를 확립하면서 종래의 주술적 세계관에 결정타를 가한다. 이는 진실로 근대의 정초(定礎)가 되는 문턱이며 이후에 신학, 철학,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의 과학을 종합하면서 기계적 세계관에 입각한 근대 정신을 완성시킨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다.⁴⁾

둘째, 흔히 17세기에 근대성 프로젝트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고 간주되는 3명의 철학자 -베이컨, 데카르트, 로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데카르트이다. 이 프랑스 철학자는 앞서 보았던 과학의 승리에 고무되어 '주체'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진정한 철학적 근대를 개막시킨다. '나'는 이제 사고의 주체인 동시에 존재의 근거이다. 독립된 주체는 더 나아가 신에게 구걸하던 진리의 탐구를 떠맡아 인식론은 이후 근대 철학의 주인공이 된다(이진경, 1997: 82-83). 주체 철학의 승리는 곧 초월적 종교의 패배를 의미한다. 특히 바로크시대에는 종교적 분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 개혁의 여파로 인해 가톨릭에 의해 통일되어 있던 기독교세계는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교회는 중심 축을 상실하고 하느님은 이제 세계

4) 한편 세베로 사르두이는 진정한 바로크적 과학혁명이 케플러의 발견(1609)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종래의 우주관에 의하면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케플러에 의해 행성운동이 불완전한 타원형이라는 것과 태양은 그 중의 한 축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제 우주의 운행 원리는 조화와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이 아니라 "부재하는 중심" centro vacio의 둘레를 회전하는 타원이 된다. 사르두이에 의하면 이러한 빈 중심과 허(虛)의 감정이야말로 바로크적 정신상태의 기반이 된다(Severo Sarduy, 1978: 183).

의 유일한 중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시계의 태엽을 감아 놓고 낮잠을 즐기는 “숨은 신”일 뿐이다.

셋째, 정치적으로 16세기이래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한 스페인은 봉건체제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절대군주제가 탄생한다. 그것은 유럽 최초의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시기는 또한 스페인 제국의 좌절과 몰락의 시기이기도 하다. 즉 스페인은 일련의 정치, 군사적 사건을 통해 유럽에서의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상실한다.⁵⁾ 원래 국민국가란 민족 단위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내적으로는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국가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에서의 국민국가는 가톨릭 교회와 결합하여 앞서 발생한 근대적 양상에 대항하는 체제수호와 통제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정신에 역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페인에서의 절대군주제는 와해되는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봉건귀족과 근대 부르조아가 힘의 타협을 한 결과로서 절대 권력의 행정적, 사회적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José Antonio Maravall, 1975: 162).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시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특히 스페인에 더욱 심하게 불어온다. 일반적으로 17세기는 중세적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양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특히 인구증가와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예술 분야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남미 식민지 수탈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발흥하는 금융자본주의 체제로의 변신에 실패한 스페인은 이 시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는다. 이 때 이미 프랑스는 콜베르(Colbert)의 주도하에 경제개혁을,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의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였다. 호세 안토니오 마라발은 스페인 경제의 몰락을 관리들의 부패와 주

5) 그 사건들이란 무적함대의 패배(1588), 포르투갈과 까말루냐의 반란(1640), 30년 전쟁의 종결로서 유럽에서 스페인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웨스트팔리아 조약(1648), 프랑스와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피레네 조약(1659),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교체되는 왕위계승전쟁(1702) 등이다.

도적인 경제 엘리트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Maravall, 1975: 81-87).

위에서 살펴본 여러 양상을 여타 유럽국가의 발전양상과 관련해 종합해 볼 때 17세기는 점차 새로운 의식과 사회문화적 양태로서의 근대성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라발은 스페인과 중남미 사이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이 시대의 근대성의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들고 있다: 봉건적 질서의 붕괴, 자본주의 경제의 발흥, 대도시의 발전, 국민국가의 출현, 가톨릭 교회의 쇠퇴, 이성주의 철학의 등장, 근대과학의 발전(Maravall, 1975: 14-33). 이 모든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17세기는 근대성과의 저항하는 반근대성이 혼재된 극히 모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요소와 더불어 스페인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 볼 때, 기존의 사회를 받쳐주던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과 계속되는 전쟁, 정치권의 무능, 그리고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불안은 사회전반에 불안정성과 무질서를 야기시킨다. 게다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불의는 개인의 행동양식을 허위와 속임수에 기반을 두게 한다.⁶⁾ 이와 관련해 마살 버먼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근대성이 사람의 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모든 원리나 토대의 원천적인 결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근대성은 본질적으로 역설의 경험이라고 지적한다(황종연, 1997: 203). 버먼에 따르면 근대성이란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인간경험의 차원으로서 세계의 변혁을 약속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위협하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Marshall Berman, 1982: 15). 바로 이것이 스페인에서 '환멸'(幻滅, *desengaño*)이라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근대성/반근대성의 모순적인 혼재 상태의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네오바로크 문학의 근대성과 관련해 20세기를 살펴볼 때 이

6) 이렇게 해체되는 사회의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악자소설(惡者小說 *novela picaresca*)의 주인공인 악자(*pícaro*)이다. 악자는 당시 스페인의 대표적인 주변부 인물로서 중세의 거지와 광인이 결합된 탈중심적 체계의 표본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세기는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위기와 혁명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1910년의 멕시코 혁명과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으로 금세기는 수많은 혁명과 대소규모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 경제대학 교수인 이마무라 히토시(今村仁司)는 17세기 이래의 근대 역사를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7세기에 개막된 근대는 18세기말의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종막을 고하고 제 2근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제 1근대에 이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새로 등장하는 제 2근대는 관리, 통제, 그리고 계획에 기반을 둔 경제, 정치 체제가 주도하게 된다(이마무라 히토시, 1999: 170-171). 제 2근대의 본질은 이론적 학문보다 실천적인 운동에 있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전환은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근대 체제가 자리잡게 됨에 따라 제 1근대의 정신으로 제 2근대의 현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이마무라 히토시, 1999: 170).

한편 이정우는 다른 글에서 근대라는 시대를 특성화하는 계열들로 과학, 예술, 그리고 혁명이라는 3요소를 들고 있는데 (이정우, 1999(3): 337) 히토시의 견해와 관련해 볼 때, 앞서 보았듯이 과학과 철학이 17세기의 제 1근대를 개막시키는 핵심적인 계열을 이룬다면 혁명은 19세기와 특히 20세기의 제 2근대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계열을 이룬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세계적 위기는 중남미에서 특히 첨예하게 표출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미제국주의와 결합한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경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블록화한 가운데 주변부인 중남미는 세계의 '슬럼가'로 전락하였다. 즉 식민시대는 끝났지만, 장 프랑코가 말한 대로, 신식민주의의 양상 아래 식민지적 정신, 즉 열등감, 공포, 착취 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도시는 불의와 폭력의 무대가 되어 새로운 형태의 악자들을 양산하였다. 실제로 곤살레스

에체바리아(Roberto González Echevarría)는 가르시아 마르케스, 푸엔테스, 까브레라 인판테, 꼬르다사르 등 봄소설의 작품들에서 『셀레스티나』(Celestina), 『라사리요 데 포르메스』(Lazarrillo de Tormes)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작품을 잇는 악자소설의 전통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네오바로크 문학이 절정에 달하는 중남미의 60년대는 제 2근대성의 주된 계열인 혁명에 대한 희망이 아직 팽배해 있던 시기였다. 특히 1959년의 쿠바혁명은 신식민주의 체제하에서 미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 대한 최초의 혁명으로서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유토피아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특히 카스트로의 문화정책 하에 지식인들이 중남미 최초로 국경을 초월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로 사회주의적 성향에 기반을 둔 대중운동은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였고 부의 즉각적인 재분배를 요구하였다. 또한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된 사건은 또 다른 형태의 혁명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독재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며 우후죽순처럼 혁명의 기운이 퍼져 나간다. 그리고 이들 혁명운동들은 하토시가 지적하듯이 대부분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토피아의 환상을 제공하며 세계를 휩쓸었던 혁명의 매혹적인 열기는 곧 환멸로 바뀐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특히 핵무기 시대의 개막은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의 승리가 오히려 인간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근대성의 역설과 부조리를 명백히 보여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의 건설이 아니라 또 하나의 메타담론으로서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로 변질되어 버린 혁명의 반동성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러한 모순은 천동설이 붕괴되고 난 후의 바로크적 인간들이 느꼈던 감정과 동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대 형성의 선행적 조건으로서 과학과 혁명이라는 근대의 계열을 가능케 해 주었던 '주체'는 역설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축과 중심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핵

무기, 냉전, 환경파괴, 인구증가 등은 서구의 로고스 중심적인 악과 위선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1968년 파리 5월 사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는 스스로를 질서로 규정하지만 무질서라는 귀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근대성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중남미에서도 역시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적 향수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의 일련의 사건들 -플라델로고 학살(1968), 빠디아 사건(1971), 아엔데 정권의 붕괴(1973), 경제공황 등-을 겪으며 환멸로 변한다. 특히 까스뜨로 혁명의 허위성을 폭로한 반혁명 시인, 에베르토 빠디아(Heberto Padilla)투옥과 피노체(Pinochet)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린 아엔데의 사회주의 이상은 그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 발생한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과 <프라하의 봄>과 함께 400년에 걸친 근대의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문턱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동구권의 붕괴는 이미 내부가 해체되어 버린 근대의 외벽 철거작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시대배경 하에서 과학이나 혁명과 함께 근대의 중심 계열을 이루는 예술, 구체적으로 17세기의 스페인 바로크 문학과 20세기의 네오바로크 문학이 경험하고 구현하는 근대성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반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IV. 근대성, 반근대성, 탈근대성

앞에서 살펴본 여러 양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여파를 미치고 있다. 우선 17세기의 스페인에서는 중세적 체계가 무너지면서 아울러 명예, 도덕, 신앙 등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된다. 근대성에 기반을 둔 세속적 삶의 유한하고 허위적이며 불안정한 성격(이는 질서와 혼돈을 동시에 수반하는 근대성 자체의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다)은 “환멸”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되어 바로크문학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상실한 바로크적 인간은 ‘고아의식’, 즉 신학적,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을 지탱해 오던 종래의 신념체계가

붕괴되고 “주체”의식과 개인주의가 득세하면서 느끼게 되는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게 되며, 이에 바로크 문학과 예술은 그러한 위기의 사회를 표출하는 동시에 그 해법을 제시하는 메시아의 역할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17세기의 바로크적 언어는 본질적으로 문학적 근대성의 표현이며 동시에 세속적 근대성-합리성과 탈주술화-에 대한 방어 보루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스바하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은 바로크를 반종교개혁 혹은 예수회의 예술이라 간주한다(Werner Weisbach, 1942: 5). 즉 그것은 마라발이 말하듯이 “이념적(정치, 혹은 종교) 설복”의 예술이었던 것이다(Maravall, 1975: 159). 이는 당시 예술이 보여주는 형식적 자유(libertad aparente)가 본질적으로는 통합의 원리에 의해 원격조종(control profundo)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문학적 근대성과 이념적 반근대성, 바로 이것이 바로크 언어의 본질적인 모순이요 역설이었다.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분리된 불안정한 언어와 사회적 질서를 추구하는 전통적 가치관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세르반테스와 로페 데 베가 등의 스페인 작가들뿐만 아니라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로크 작가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Terry Eaglton, 1996: 9-10).

미학적 근대성과 사회적 근대성의 모순은 20세기 중남미 붐소설 작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구대륙의 낡은 언어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언어를 창출해 내고자 했던 중남미 신소설 작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의 아방가르드 문학과 영미 모더니즘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스페인어권의 바로크 문학의 풍부한 전통을 이어받아 언어와 구조의 혁신을 꾀하는 문학적 근대성을 이루어 낸다. 이들이 추구하는 언어적 정체성의 확립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중남미인들의 정체성 추구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붐소설의 문학적 총체성은 곧 사회적 총체성 추구하고 직결되며 이 배후에는 앞서 제 2근대의 주도적 계열로 언급했던 혁명이라는 주도담론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척박한 중남미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역사적 낙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의 정체성 추구가 지향하는 것이 결국은 반서구화이며 반서구화란 제 3세계권에서 반근대성이라는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봄소설의 네오바로크 미학의 역설을 암시해 준다. 바꾸어 말하면 중남미 현대소설의 네오바로크미학이 근대성과 서구의 문학장(文學場)에 맞서 내세운 무기는 중남미인의 정체성과 중남미적 언어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까를로스 푸엔테스의 말대로 경향성과 미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동원한 또 다른 형태의 이성이었다. 그러나 정체성이란 것이, 미셸 푸코의 말대로, 근대인을 생산해 내는 근대적 권력의 소산이며, 총체성이란 것 역시 논리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요청한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이정우(3), 1999: 331) 봄소설은 중남미 특유의 신화와 환상이 혼용된 인식론적 총체성을 기반으로, 바로크 언어를 빌린 미학적 총체성을 통해, 중남미적 현실에 대한 사회역사적 총체성(정체성)에 도달하려는 역설적인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남미를 이끌고 나갔던 “지배담론” 아닌 “주도담론”(이정우(1), 1997: 7)이, 앞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과 역사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중남미 네오바로크 소설에서의 미학적 근대성과 사회적 근대성은 17세기 바로크 문학이 보여주는 것만큼의 모순은 노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바로크와 네오바로크는 근대성의 위기가 노출되는 시기의 미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중심과 축의 상실 뒤에 남겨진 공백의 자리에 메꾸어진 바로크의 무기는, 아놀드 하우저가 지적하듯이, 하느님과 그 지상의 대리자인 왕, 즉 반근대적 기제였다고 한다면(Arnold Hauser, 1980: 191), 네오바로크의 무기는 근본적으로 근대성의 계열에 속하는 이성과 역사, 그리고 혁명이었던 것이다. 또 바로크 문학이 추구했던 것이 돈키호테가 말하는 과거의 황금시기에 대한 향수(nostalgia al paraíso perdido)였다면 네오바로크의 지향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향수”(nostalgia del futuro)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모

두 궁극적으로는 바로크와 네오바로크의 공통점으로 앞서 보았던 “중심에 대한 향수”(nostalgia del centro)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전자가 중세의 기독교적 시간관에 바탕을 둔다면 후자는 근대의 역사적 시간관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 1근대 시기의 근대성의 요소를 이루는 스페인의 국민국가 역시 정체성의 추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근대성에 때묻은 비동일적인 것을 배제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면 제 2근대 시기의 하나의 중남미라는 정체성 추구는 근본적으로 근대성에 힘입어 서구 역사에 열등감 없는 당당한 존재로서 진입하려는 근대적 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 바로크가 모두 사회의 세속화가 전면화되면서 경험하는 해체의 위기를 미학적 영역이 극복해야 한다는 미학적 모더니티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기, 1997: 27). 두 바로크 문학이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질서속의 질서”(orden desordenado)는 바로 위와 같은 미학적 계열과 세속적 계열의 어긋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 현대소설이 보이는 미학적 근대성과 세속적 근대성의 불안정한 통일은 앞서 보았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 메타담론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소설가들은 이제 정통 붐소설의 경향과는 다른 모습의 글쓰기를 보여준다. 그것은 종래의 언어와 구조혁신을 변함없이 수행하는 작업이기에 피상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 저류에는 거대한 세계관의 변환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 이 변화를 앞서 언급했던 17세기 바로크와 20세기 네오바로크의 7가지 미학적 공통점들과 관련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심에 대한 향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제 바로크의 “허(虛)에 대한 공포”(horror vacui)는 “충만(充滿)에 대한 공포”(horror pleni)로 바뀐다. 또한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문턱이었던 언어의 자기반영성은 더욱 극단적으로 추구되어 ‘언어 소설’(novela de lenguaje)이 논의된다. 텍스트 읽기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해석학적 읽기’에서 텍스트 자체가 현실이 되어 버리는

‘수사학적 읽기’로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강영안, 1999).

여기서 우리는 네오바로크 미학을 2단계로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두 단계의 네오바로크가 공히 근대성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전 단계의 네오바로크가 근대성의 논리를 역이용한 모더니즘적 대응이었다면 2단계의 네오바로크는 20세기 후반부의 문화형태인 포스트 모더니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황종연, 1997: 224). 제 2단계의 네오바로크 미학을 보여주는 작가들은 다음과 같이 3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스따보 사인즈 (Gustavo Sáinz), 레이날도 아레나스 (Reinaldo Arenas), 안토니오 스키크메타 (Antonio Skármeta) 등과 같이 1940년대에 태어난 젊은 작가들. 둘째, 까를로스 푸엔떼스와 바르가스 요사처럼 정통 붐소설 세대에 속하지만 정체성 추구하고 총체적 야심을 버리고 글쓰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가들. 셋째, 까브레라 인판떼, 세베로 사르두이, 마누엘 뿌익 등과 같이 나이로 보면 붐세대에 속하지만 당시의 주도담론이었던 근대성 논리에 의하지 않고 일찌감치 언어의 세계에 몰두한 작가들. 이들의 작품은 낭만주의자들이 체험해야 했던 매혹에서 환멸로의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면서 근대의 로고스중심적 사유체계를 벗어나 탈근대의 문턱을 넘어선다.

따라서 20세기 후반부의 네오바로크 미학은 17세기의 바로크 미학과 마찬가지로 근대성 논리의 표출임과 동시에 그 반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17세기의 미학이 근대성과 반근대성의 혼재 상태를 보여준다면 20세기의 미학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경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는 말: 네오바로크와 근대성의 종말

두 바로크 시대는 근대성에 대한 갈등과 위기가 표출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근대사회는 구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 전통 사회의 정태적인 자연을 급격히 단절시키면서 그 물리적 환경을 변모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이 변모의 근저에는 베버의

말대로 주술화를 배제하는 '질서'라는 근대성의 프로젝트가 투사되어 있는데, 바로크와 네오바로크는 결과적으로 질서와 혼돈을 동전의 양면처럼 가질 수밖에 없는 근대성의 가면 벗기기이며 동시에 근대성의 메타담론들에 대한 '역 탈주술화'(逆 脫呪術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의 바로크는 미학적 근대성을 성취해 내기는 하지만 주체철학과 자율적 인간을 지향하는 제 1근대성에 대해 반근대적 이념을 갈망하고 있는 모순(근대/반근대)을 극명히 보여준다. 한편 20세기의 네오바로크 -특히 제 2단계-는 마찬가지로 미학적 근대성을 이루어 내지만 19세기이래 계몽과 동시에 역사라는 맹목적 주체(근대적 초월성, 혹은 새로운 우상)의 성장과 발전으로 질적인 변모를 하고 있는 제 2근대성에 대한 탈근대적 저항을 동시에 표출하는 모순(근대/탈근대)을 표출한다. 이정우의 '계열'과 '문턱'이라는 개념을 빌어 말하자면 바로크의 미학적 계열의 근대성이 세속적 계열의 반근대성과 근대성 사이의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면, 네오바로크에서는 미학적 계열의 근대성이 세속적 계열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사이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라발은 결론적으로 바로크 시대가 근대성이 최초로 마주치는 커다란 위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블라스 마따모로(Blas Matamoros)는 더 나아가 바로크가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고 평가한다. 필자는 네오바로크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계열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마따모로의 견해는 타당성을 가지며 이는 근대성과 관련된 바로크 미학의 현대성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던 바로크 미학은 근대성의 종말을 살고 있는 지금 네오바로크 미학으로 부활해 400여 년간 장수했던 근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근대적 주체의 탄생과 변모」, 한국외대 대학원 겨울학교 특강, 1999. 1. 9.
- 김성기, 「세기말의 모더니티」,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15-50, 1997.
- 신정환, 「아방가르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바로크 미학의 부활」, 『외국문학연구』, 4: 211-226, 1998.
- 이정우, 『가로지르기』, 서울: 민음사, 1997.
- _____, 「“근대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한국외대 대학원 겨울학교 특강, 1999. 1. 7.
- _____, 『인간의 얼굴 -탈주와 회귀 사이에서』, 서울: 민음사, 1999.
- 이진경, 「마르크스주의와 근대성」,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79-115, 1997.
- 임정택, 「계몽의 현대성」,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51-78, 1997.
- 황종연, 「모더니즘의 명령을 찾아서」,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194-225, 1997.
- 히토시, 이마무라(今村仁司),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역, 서울: 민음사, 1999.
- Alonso, Dámaso, *Estudios y ensayos gongorinos*, Madrid: Gredos, 1982.
- Berman, Marshall,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 Carmen Bustillo, *Barroco y América Latina*, Caracas: Monte Avila, 1988.
- Eaghton, Terry, 『셰익스피어 다시 읽기 William Shakespeare』, 김창호 역, 서울: 민음사, 1996.
- Giddens, A.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Polity Press, 1992.
- Hatzfeld, Helmut, *Estudios sobre el barroco*, Madrid: Gredos, 1966.

- Hauser, Arnold,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 상』, 백낙청(외) 역, 서울: 창작과 비평, 1980.
- Lafforgue, Jorge, “La nueva novela latinoamericana”, *Nueva novela Latinoamericana I*, Buenos Aires: Paidós, 1976.
- Maravall, José Antonio, *La cultura del Barroco*, Barcelona: Ariel, 1975.
- Ocampo, Aurora M. “Un intento de aproximación al realismo mágico”, en *Actas del XVII Congreso del Instituto Internacional de Literatura Iberoamericana*, Madrid: Cultura Hispánica del Centro Iberoamericano de Cooperación, 1978.
- Rama, Angel, *Rubén Dario y el modernismo*,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1970.
- Sarduy, Severo, “El barroco y el neobarroco” en César Fernández Moreno(ed.), *América Latina en su literatura*, México: Siglo Veintiuno, 1978.
- Soler Serrano, Joaquín “Alejo Carpentier: Las lenguas de esopo”, en *Escritos a fondo*, Barcelona: Planeta, 1986.
- Weisbach, Werner, *El barroco, arte de la contrarreforma*, Madrid: Espasa-Calpe, 1942.
- Welleck, René, *Historia literaria. Problemas y conceptos*, Barcelona: Laia, 1983.